

동아시아지역 식생활 공간구조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Structure of Dietary-life space in the Eastern Countries
-focusing on Dietary-life space of Korea, China, Japan

이경아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Lee, Kyung-Ah
Faculty of Design, College of Fine Arts, SNU

장호익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Chang, Ho-ik
Faculty of Design, College of Fine Arts, SNU

• Key words: Dietary-life space, the Spatial culture, Korea, China, Japan

1. 서론

사회 인류학자들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공간에 대한 분류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디자인을 할 때 특정 사회에 변치 않는 일련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¹⁾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미흡하나마 동아시아 식생활구조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여, 이 공간과 연계된 제품의 상이성을 추출하는 선행연구의 일환으로 삼고자 한다.

문화의 맥락에서 상류계층의 문화가 하류계층에 전파되는 일반적 특질에 따라, 상류계층의 문화의 전형이면서 현재까지도 그 주거양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사합원(四合院)과 한국의 반가(班家), 일본의 쇼인(Shoin)주택을 동아시아지역의 전형적 공간으로 설정하였다.²⁾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의 실체로서의 요소와 상징체계로서의 요소라는 복합적 체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독특한 '사이공간'이 직접적으로 식생활공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식생활공간을 거실 영역, 식사영역, 조리영역, 접객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양상을 살펴 본다.

2. 동아시아지역 공간구조 비교 분석

2.1. 동아시아지역 공간구조의 공통된 특질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자연의 요소 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주거의 개념과 공간사상에 의한 형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동아시아의 기후와 재료가 목조구조는 대표적 양식을 낳았고 또 이 목조구조와 함께 공간에 대한 사상이 독특한 '중정형 주택'이 널리 파급되도록 하였다. 또한 공통적으로 담을 쌓듯 폐쇄적인 외부 안으로 같은 단위체의 배열이 이루어지며 이들이 자연과 함께 하고 있다.

2.2. 상징적 체계를 담고 있는 공간영역 구조 분석

중국은 가부장제도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형제균등분할

1) Low, Setha M., Chambers, Erve., 주거문화연구회 역, 『주거, 문화, 디자인』, 신광출판사, 1994, p101 : 7 참조

2) 현재 동양의 문화권에서 서구문화가 지배적인 모습에서도 고유하게 변하지 않는 전통문화의 잔재를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양식외관의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 및 맨션에서도 최소한 한 개 실 이상은 일본식인 와시쓰로 꾸며지고 있다. 중국 또한 주거 형태의 전형인 사합원의 원리에 따라 아파트에도 그 배치와 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또한 독특한 '다용도실' 설계가 자리하고 있다.

상속제도에 따라 오히려 엄격한 공간구분이 필요했다. 이러한 주거 단위는 개인의 공간인 와실(臥室)을 최소단위로 하여 가족이 거주하는 단위주택의 나열로 이어졌다. 조선은 유교를 사회체제로 뿌리내리기 위해 상류주택에 규범의 일환으로 철저히 덕목을 공간화했다. 조선 중기에 이르면 유교적 체계가 공간구조에 확실히 자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외법, 가묘제, 혼인제도 등 엄격한 제도와 의례가 반가의 공간구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반가의 안채와 사랑채의 엄격한 공간적 분화는 조선시대 반가의 큰 공간적 특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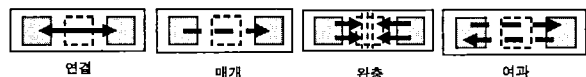
일본은 무가라는 독특한 정치체계에서 쇼인양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계급의 엄중성과 함께 무가에서는 접객의 의무가 두드러졌다. 그러한 까닭에 쇼인양식은 접객을 위주한 내부구성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곁의 영역으로 공적인 영역이 있고 안의 영역으로 일상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한 체안에 두 가지 계열의 공간분절이 일어난다.

2.3. 사이공간의 발달과 영역 사용성

동아시아의 공간구조는 필연적으로 사이공간이 파생된다. 여기서 '사이공간'³⁾은 그 공간의 무수한 영역 중에서 일상패턴을 통해 보았을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구조로서 사이공간적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합원의 경우는 중정과 회랑을 들 수 있고, 반가의 경우는 방과 마당과 대청과 중문간, 부엌을, 쇼인 주택은 복도와 쇼인즈를 들 수 있다.

3) 이진길, 남해경, 박한규, 『한국전통건축의 사이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7권 1호, 2001-01에서 사이공간의 분석으로 연결, 매개, 완충, 여과의 역할로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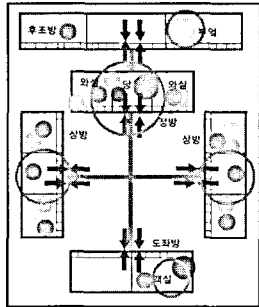
- (1)연결 : 단위 공간 사이에서 동선적, 시각적으로 연결하여 단위 공간의 통합을 유도하는 역할
- (2)매개 : 유사한 성격의 단위 공간 사이에서 한 단위 공간의 성질을 다른 공간에 전달하여 다른 단위 공간의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
- (3)완충 : 이질적인 단위공간 사이에서 커로서 작용하여 공간간의 충돌로 인한 사용자의 환경인식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
- (4)여과 : 이질적인 단위공간 사이에서 각 공간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공간의 환경 요소들을 걸러주는 역할



3. 동아시아지역 식생활 공간구조 비교 분석

3.1.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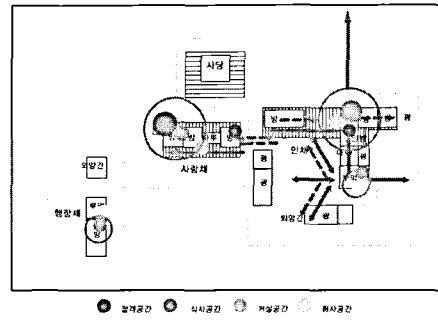
사합원은 엄격한 공간구조원리와 위계질서의 부여로 각 공간의 역할과 위계가 확실히 성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간의 변화속성은 거주 공간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연의 세계인 중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주거공간에서의 행태를 고정화한다. 위계질서에 따라 엄격하게 채의 단위로 생활이 독립되어 있으며 그 채와 채를 잇는 사이공간의 성격 또한 한정된 기능만을 가진다. 즉 중정은 단지 연결의 기능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채마다 외부와 연결을 맺게 하는 회랑 또한 완충의 기능으로 그 채 안에서의 휴식과 외부와의 연결만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생활구조 또한 독립적인 채의 단위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채의 분화된 생활과 한정된 기능의 사이공간이 취사를 하는 부엌공간과 각 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없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채마다 간단한 부엌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즉 각 채마다 식생활단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부장제의 엄격한 위계 속에 독립된 생활 경향이 뚜렷한 사합원의 구성원리와 체를 같이 한다.



● 접객공간 ○ 식사공간 ○ 거실공간 ○ 취사공간

3.2.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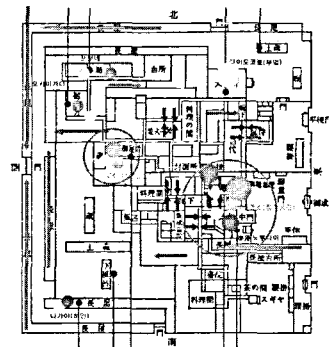
반가는 공간성에 대한 역할 부여는 엄격했지만 실제 공간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자유롭고 유기적인 활용이 돋보인다. 그것은 동양의 시공간을 온돌과 목구조의 방식에 적절히 부합시킨 결과이다. 특히 한 집안에서 모든 생활을 자급자족하였던 반가 문화속에서 안채의 공간활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가장 적극적인 활용도를 보이는 부엌과 마당은 취사영역의 주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의 쓰임새가 더욱 좋다. 이에 부엌은 완전한 개방상태가 된다. 또한 부엌을 통해 안마당과 뒤뜰 그리고 사랑채까지 통하는 연결고리가 일반적이었다. 또 마당은 취사와 더불어 대청과 방으로 가기 위한 사이공간이 된다. 대청은 방과 부엌 사이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연결의 기능은 물론이고 식사와 저장, 의례에 이르기까지 공간활용이 매우 적극적이다. 이렇게 안채의 공간들은 유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사이공간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채와 이어주는 중문간은 단지 여과의 기능만을 하고 있다. 이는 한 채안에서의 사이공간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생활기능에 충실하도록 되어 있으나 채와 채 사이에는 오로지 중문간만 그 사이기능을 함으로써 채의 엄격한 위계분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 접객공간 ○ 식사공간 ○ 거실공간 ○ 취사공간

3.3. 일본

무가의 엄격한 체계 아래 접객이 위주가 되어야 했던 식생활 공간은 접객공간의 식생활구조와 일상생활공간의 식생활구조로 이분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식생활구조는 사이공간의 성격에서도 기인한다. 쇼인주택의 사이공간은 한 채에 복합적인 간의 분화로 이루어지는 공간 구성속에서 쇼인즈의 미담이를 통해서 공간을 변용시켰다. 이는 공간과 공간 사이의 완충작용을 할 뿐이며 기능을 옮겨서 적극적인 생활의 전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중심이 되는 부엌에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는 연결의 기능만 가진 복도였다. 이러한 사이공간의 미분화때문에 식생활구조는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접객공간과 주인이 자리하는 고신소를 중심으로 식사와 거실, 접객의 생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 접객공간 ○ 식사공간 ○ 거실공간 ○ 취사공간

4. 결론

동아시아 주거문화는 자연적 환경 요소와 더불어 독특한 공간사상의 흐름이 그 기본 구성체계를 이루고 그 영역속에 상징적 체계가 공간을 부여하였다. 사합원의 사이공간인 중정과 회랑은 가족 제도의 상징체계와 맞물려 연결이라는 소극적 역할만을 한다. 이러한 구조속에서 식생활또한 독립적인 채 단위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반가는 성역할에 따라 채의 분화가 뚜렷하지만, 한 채안에서의 사이공간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생활기능에 충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채와 채 사이에는 오로지 중문간만 그 사이기능을 함으로써 채의 엄격한 위계분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식생활공간을 영위하기 위해 안채는 거의 모든 공간을 사이공간으로써 활용하고 있다. 무가의 엄격한 체계 아래 접객이 위주가 되어야 했던 쇼인의 식생활공간은 접객공간의 식생활구조와 일상생활공간의 식생활구조로 이분화되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